

2019 지역특화 식량작물 수출컨설팅(3차, 예천) 결과보고

보고일 : '19. 5. 16.(목)

보고자 기술지원과 이철희 연구관

□ 개요

- 목적 : '들기름 해외수출(일본, 몽골 등) 방안' 컨설팅 및 바이어상담
- 일시/장소 : '19.5.15.(수) 11:30~14:30, 영농법인예천어무이참기름
- 참석자 : NH농협무역 김두희 대리, 에히라 일본바이어, 변성용 예천센터 소장, 송재근 법인 이사, 식량원 이명희 박사 등 10명
- 컨설턴트 : 김두희 대리(NH농협무역), 이명희 박사(식량원) 이철희 연구관(식량원)
- 출장자 : 이철희 연구관, 임세화 연구사

□ 주요 수행내용

- '영농법인 예천어무이참기름 현황'(이유영 영농법인 실장)
 - 조합원 5명/작목반 100농가로 구성, 들기름 월 생산능력은 1천병(180ml)정도
 - 원료조달은 참깨는 100% 자체생산, 들깨는 70% 자체생산, 30%는 강원도/충청도 등지에서 구입
 - HACCP, ISO22000을 획득하였으며, 3년 연속 對美수출, 중국시장 신규진출을 위해 유통업체와 상품위탁 판매계약 실시
 - * 들기름 여과방식은 자연 침전방식
 - 미국에서 온라인(아마존) 판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너무 높은 유통 마진(30%)을 요구하여 진행이 중단된 상태
 - * 판매가격 18,000원 상품을 12,600원에 납품 요구
 - 들깨 재배기술은 평이하나, 기계화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애로사항
 - 현재 원료들깨 가격은 kg당 7,000원 정도이지만 안정적 확보를 위해 1,000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음
- '對일본 들기름 소비시장 및 수출상담'(에히라 일본바이어)
 -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노년층들이 소비하기 시작하였으며, 약으로도 사용하며 점차 소비 증가

- 하지만 일부 수입상품에서 중국산 들깨를 원료로 사용, 신뢰도 상실
- 일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들기름(오메가3) 섭취를 통한 건강 프로그램의 활용 필요
- 일본시장에서 휴대성이 높은 스틱형이 독특하며,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, 가격이 합리적일 경우 수입할 용의
- 향후 자체적으로 일본내 시장조사 실시(약 1개월) → 가능성이 판단되면 수입을 위한 구체적 가격, 포장재 등에 대한 상담 실시 예정 * 일본내 시장조사는 회사 영업사원 통하여 실시
- 對日수출상품은 품질, 가격 모두 중요하며, 日語라벨 부착 필요
 - * 포장에는 한국의 고유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 중요
- 수출결정시 공급가격은 얼마인가?
 - 파우치 백(30개입) 18천원, 개당(4ml) 600원에 공급 가능
- '고품질 들기름 생산 및 가공'(이명희 박사)
 - 장기적으로 들깨 기반의 농촌융복합사업(6차산업)의 추진 필요
- '對몽골 들기름 수출시장 현황 및 전망'(이철희 연구관)
 - 수출은 한국계 대형유통망(CU, 롯데리아, 이마트 등)과 연계하고, 복잡한 현지허가/통관문제가 있어 현지파트너와 협력 진출 유리

□ 향후 추진계획

- 對日 들기름 시장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
 - * 바이어 연계 일본시장조사 추진동향 및 조사결과 정보 공유
- 對몽골/중국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
 - * aT몽골지사와 연계한 몽골내 들기름 수입바이어와 농가를 연계
- NH농협무역 등 수출전담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
 - * NH농협무역의 식량작물 수출담당자와 상호협력 방안 모색(본사방문)



<일본 바이어 상담모습>



<일본 바이어상담 모습>



<가공시설 견학>